

리로스쿨 누가기록 어떻게 해야 할까?

1. 모든 활동을 심도 있는 연구, 탐구, 보고서 작성 등으로 귀결시키지 말 것.

‘신문 기사로 구체적 사례 찾아보기’, ‘인터넷 또는 논평 등등 다양한 의견 찾아보기’, ‘작품 감상 후 서평 혹은 비평문 작성하기’, ‘비교·분석하기’, ‘친구들과 의견 공유하기’, ‘자신의 감상을 에세이(수필, 짧은 글 등), 시(한시, 국문 시, 영문 시), 그림, 음악 등으로 표현하기’, ‘관련 도서 탐독하기’, ‘관련 영화, 다큐멘터리, 온라인 공개강좌(MOOC, TED 등) 시청하기’, ‘특강 듣기’, ‘탐구 계획 수립(2학년 때 실제 탐구를 수행한다면 더욱 좋고)’ 등의 활동도 충분하다.

2.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후속의 후속의 후속으로 이어갈 것.

위에 언급한 활동들을 서로 서로 이어 붙여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자. 또한 교과 간에서도 연계하여 가지를 여기 저기 뻗어 나가도록 하자. 위에 1에서 언급한 활동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려 이어 나가도 좋다.

꼬리 물기를 해보자면, 특강을 듣고 관심 주제가 생겨 독서를 해보고 또 새로이 알게 된 점이 있어 그것에 대해 탐구/토론/조사/스크랩/TED시청 등을 하고 이 결과를 또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함. 또 다른 예로, 영어 시간에 뇌과학에 대한 글을 읽고 어떤 현상에 대해 과학적 매커니즘과 원인 등을 조사/탐구 해보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관련된 이슈 등에 대하여 친구들과 토론을 진행해보고 영어 에세이/시/음악/짧은 수필 등으로 그 결과를 표현해 봄.

3. 독서는 다다익선이지만 영양가 있는 책을 읽을 것.

어떤 책을 읽었느냐가 나의 소양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나의 지적 소양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 관심 분야 혹은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된 전공 서적, 영어 혹은 제2외국어 원서, 세계고전문학, 인문/철학 고전 등은 아주 높은 수준의 소양을 드러낼 수 있는 도서들이다. 독서활동은 책 제목과 저자만 기록되므로 방학을 잘 활용하자.

4. 간단하더라도 특색 있는 활동을 할 것.

앞서 말했듯 모든 활동을 심도 있는 탐구로 진행할 수는 없다. 간단한 활동을 하더라도 ‘임팩트’있는, ‘특색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자. 여러분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여야 한다. SSEP 교육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자.

몇 가지 인상 깊었던 활동들을 소개하자면, 1) 특강을 들은 후 스터디 친구들에게 대중이 죽음을 타자화 하는 과정을 탐구하자고 제안하여 탐구 결과(결과도 구체적으로 기술함)를 짧은 글로 작성하고 카페에 올려 공유함. (이 사례는 간단하진 않지만..) 2) 역사를 손쉽게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하여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학습에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 여러 역사서를 탐독하게 됨. 3) Great Gatsby를 읽고 왜 수식어로 Great를 사용했는지 토의함.(물론 과정과 결과 구체적으로 기술)

5. 사소해 보이더라도 모든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둘 것.

생각보다 기록해야 할 생기부 칸은 넓다. 화장실 청소를 자발적으로 한 것, 굶은일을 먼저 나서 자원한 것, 식물을 기른 것,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를 도와준 것, 매 수업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친구들에게 좋은 글귀를 공유한 것, 기숙사 별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 등등 사소해보이더라도 자신의 성품과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모두 [기타활동]에 기록해 두자. 또한 나의 관심분야, 나의 성격, 내가 강조하고 싶은 특성(리더십, 학습 태도, 교과 학습 능력 및 향상도, 봉사, 나눔, 배려,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을 비롯하여 ‘나는 이런 학생입니다’를 나타낼 것들이 있다면 역시 모조리 글로 표현해 둘 것.